

질문	답변
tcp/udp 필요한 이유	<p><b>네트워크를 계층화해 놓은 이유</b>를 생각해보면 된다.</p> <p>하나의 계층에서 오류나 처리를 하는 것보다 <b>각 계층을 의미와 기능적으로 분류</b>하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<b>오류 대응에 용이</b>하다.</p> <p>장치로의 이동은 <b>ip</b>인터넷 프로토콜로 해결이 가능하지만, <b>ip</b>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<b>icmp</b>에서 알려주고 대응은 <b>tcp/udp</b>에서 하는 것임.</p>
TCP (Transmission Control Protocol)	<p>TCP 는 <b>연결형 서비스로 가상 회선</b> 방식을 제공합니다.</p> <p>데이터의 <b>손실을 최소화</b>하고 데이터의 <b>순서를 보장</b>하는 등 데이터를 <b>신뢰성</b> 있게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, 데이터의 <b>완전한 전달과 순서가 중요한 상황</b>에서 사용됩니다.</p> <p>단정은 전화 통화처럼 시작하고 끝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<b>약간 느릴</b> 수 있습니다.</p> <p>TCP는 <b>멀티캐스팅</b>이나 <b>브로드캐스팅</b> 과 같은 한 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 또한, 통신 중에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유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흐름을 조절하고 혼잡을 제어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.</p>
가상 회선 (Virtual Circuit)	<p><b>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통신 방식</b> 중 하나입니다. 가상 회선은 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며,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기 전에 논리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</p>
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	<p><b>1. 흐름 제어 (Flow Control):</b></p> <p>흐름 제어는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의 데이터 <b>전송 속도</b>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.</p> <p>슬라이딩 윈도우 (<b>Sliding Window</b>): 흐름 제어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로, 수신자는 송신자에게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알려줍니다. 송신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. 이유는 수신자가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면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/p> <p>수신자의 알림 (<b>Acknowledgment</b>): 수신자는 성공적으로 받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<b>ACK</b> 패킷을 송신자에게 보냅니다. 송신자는 <b>ACK</b>를 받으면 데이터를 계속 전송합니다.</p> <p>흐름 제어는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데이터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</p> <p><b>2. 혼잡 제어 (Congestion Control):</b></p> <p>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고 <b>효율적인 데이터 전송</b>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입니다.</p> <p>혼잡 윈도우 (<b>Congestion Window</b>): 혼잡 제어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 중 하나로, 송신자는 현재 네트워크 혼잡 상태를 <b>감지</b>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<b>속도를 조절</b>합니다. 혼잡 윈도우 크기를 동적으로 조절하여 혼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유지합니다.</p> <p>패킷 손실 감지: 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혼잡을 감지하기 위해 패킷 손실을 모니터링합니다.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송신자는 전송 속도를 감소시키고 혼잡을 완화합니다.</p> <p>혼잡 제어는 네트워크의 혼잡을 방지하여 데이터의 손실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네트워크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.</p> <p>이 두 가지 메커니즘은 <b>TCP</b>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.</p>
UDP (User Datagram Protocol)	<p>UDP는 편리하고 <b>빠른</b>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<b>보장하지 않습니다</b>.</p> <p>따라서, <b>연속적인</b> 데이터 전송이 중요하고 조금의 데이터 <b>손실을 감수</b>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.</p> <p>UDP는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, 음성 통화 등과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.</p>
TCP와 UDP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	<p>TCP (Transmission Control Protocol)는 연결 지향적이며 신뢰성이 있는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합니다. 반면, UDP (User Datagram Protocol)는 연결이 없는 비신뢰성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하지만 보장하지 않습니다.</p>

3-Handshaking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	<p>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 요청 (SYN):</p> <p>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<b>TCP</b> 연결을 설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<b>SYN (Synchronize)</b> 패킷을 보냅니다.</p> <p>클라이언트의 초기 시퀀스 번호 (ISN)가 이 패킷에 포함되어 있으며, 이 값은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스트림의 시작을 나타냅니다.</p> <p>서버가 응답 (SYN-ACK):</p> <p>서버는 클라이언트의 <b>SYN</b>을 받고, 클라이언트에게 연결을 수락한다는 신호로 <b>SYN-ACK</b> 패킷을 반환합니다.</p> <p>서버는 또한 자체적으로 초기 시퀀스 번호 (ISN)를 생성하여 이를 패킷에 포함시킵니다.</p> <p>클라이언트가 응답에 대한 확인 (ACK):</p> <p>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의 <b>SYN-ACK</b>를 받으면 이에 대한 확인을 보내는 <b>ACK (Acknowledgment)</b> 패킷을 생성하고 서버로 보냅니다.</p> <p>이 패킷은 서버에게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줍니다.</p> <p>이제 양쪽 모두가 연결 설정을 완료하고, 데이터 전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.</p>
4-way 핸드셰이크 (TCP 연결 해제)	<p>클라이언트가 연결 종료 요청 (FIN):</p> <p>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전송을 모두 마치고 연결을 종료하려고 할 때,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<b>FIN (Finish)</b> 패킷을 보냅니다.</p> <p>이것은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.</p> <p>서버가 확인 및 데이터 전송 (ACK):</p> <p>서버는 <b>FIN</b>을 받으면, 이것에 대한 확인으로 <b>ACK</b> 패킷을 반환합니다.</p> <p>그러나 아직 서버가 보내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이 패킷에는 <b>FIN</b>을 포함하지 않습니다. 서버는 데이터 전송을 완료한 후에 <b>FIN</b>을 보내기 위해 대기합니다.</p> <p>서버가 연결 종료 요청 (FIN):</p> <p>서버가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고 연결을 종료하려고 할 때,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<b>FIN</b> 패킷을 보냅니다.</p> <p>이것은 서버가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.</p> <p>클라이언트가 확인 (ACK):</p> <p>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의 <b>FIN</b>을 받으면 이에 대한 확인으로 <b>ACK</b> 패킷을 반환합니다.</p> <p>이로써 클라이언트는 연결 해제 요청에 동의하고 연결이 종료됩니다.</p>
TCP의 혼잡 제어(congestion control)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?	<p>혼잡 제어는 네트워크 혼잡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. 혼잡 제어가 없으면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해 패킷 유실과 대기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</p>
어떻게 혼잡 제어가 동작하나요?	<p>혼잡 제어는 주로 <b>TCP (Transmission Control Protocol)</b>에서 사용됩니다. <b>TCP</b>는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동적으로 조절합니다.</p> <p>혼잡 제어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혼잡을 감지하고 패킷 손실을 모니터링합니다. 패킷 손실이 감지되면 송신측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소시키고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.</p>
DNS(Domain Name System)의 기능은 무엇인가요?	<p><b>DNS</b> 도메인 이름을 <b>IP</b> 주소로 변환하고, <b>IP</b> 주소를 도메인 이름으로 역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.</p> <p>도메인 이름 해석 (Name Resolution): <b>DNS</b>는 사용자가 읽기 쉬운 도메인 이름(예: <b>www.example.com</b>)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형태인 <b>IP</b> 주소(예: <b>192.0.2.1</b>)로 변환합니다.</p> <p>도메인 이름의 계층 구조 관리: <b>DNS</b>는 도메인 이름을 계층 구조로 관리합니다. 최상위 도메인(<b>Top-Level Domain, TLD</b>)에서부터 하위 도메인으로 이어지는 계층 구조를 통해 도메인 이름을 관리하고 식별합니다.</p> <p>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: <b>DNS</b>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.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은 고유한 도메인 이름을 부여하고, 이를 <b>DNS</b>에 등록하여 사용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
DNS의 동작 방식	<p>도메인 이름 쿼리: 클라이언트(예: 웹 브라우저)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려고 할 때, 클라이언트는 <b>DNS</b> 서버에 도메인 이름 쿼리를 보냅니다.</p> <p><b>DNS</b> 서버 조회: <b>DNS</b> 서버는 도메인 이름을 검색하고, 로컬 캐시에서 해당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<b>IP</b> 주소를 찾습니다. 로컬 캐시에 없는 경우, 상위 <b>DNS</b> 서버에 쿼리를 보내 <b>IP</b> 주소를 찾습니다.</p> <p>계층적인 조회: <b>DNS</b> 서버는 도메인 이름을 계층적으로 조회하며, 최상위 도메인(<b>TLD</b>) 서버부터 시작하여 하위 도메인 서버로 이동합니다. 이렇게 계층 구조를 따라 도메인 이름을 해석합니다.</p> <p><b>IP</b> 주소 반환: <b>DNS</b> 서버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<b>IP</b> 주소를 찾으면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합니다.</p> <p>로컬 캐싱: <b>DNS</b> 서버는 조회한 도메인 이름과 해당 <b>IP</b> 주소를 일정 기간 동안 로컬 캐시에 저장하여 다음에 동일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조회 시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